



# '99년도 상반기 정유사 경영실적 분석



서 동 구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사무관 〉

## 1. '99년 상반기 정유사 경영실적

'99년 상반기 정유 5사의 총매출액은 법인전체기준으로 12조 5,086억원을 기록, 전년동기에 비해 약 29%의 감소세를 시현하여 '94년 이래 연평균 27%의 높은 신장세를 보여왔던 정유업계의 매출액 규모가 '96년 동기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정유사들의 반기순이익(세전) 규모는 매출액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약 294%나 증가한 5,219억원을 기록하여 외형적인 성장은 줄었으나, 내실경영의 척도인 순이익규모면에서는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 '99상반기 정유사 경영실적(법인기준) 〉

(단위 : 억원)

	'97상	'98상	'99상	증감율(%)
총매출액	140,917	176,234	125,086	△29.0
세전순이익	3,235	1,325	5,219	293.9

정유사 총매출액은 국제원유가격 및 환율의 하락으로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금액의 원화표시도 원화절상에 따라 크게 감소한데 따라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반면, 반기순이익(세전)은 환율안정 및 금리인하에 따른 영업외적인 요인(영업외수익/비용)에서의 호전이 급증세를 보인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

〈 원유도입가격 등 변동추이 〉

	'98. 상반기	'99. 상반기	증감율(%)
원유도입FOB(\$/B)	13.32	12.10	△9.2
평균환율(₩/\$)	1,528.04	1,211.63	△20.7
내수물량(천B)	273,988	299,835	9.4
수출물량(천B)	175,580	158,846	△9.5
가동률(%)	93.5	96.2	+2.7%P

## 2. 경영실적 분석

'98년도에 정유사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극심한 석

유수요 부진속에서도 환차익 및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1조원이 넘는 경영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이러한 경영여건은 올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정유회사들의 경영실적은 크게 호전되리라 예견되어 있었다.

정유회사들은 사업의 특성상 차입금 비율이 높고, 대량의 원유구입에 따른 대금결제를 달러화로 지불하기 때문에 정유업계의 경영실적은 특히, 외환시세 및 금리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사실 올 상반기 정유사들의 실제 영업부문에서의 실적(영업이익)은 작년동기에 비해 5천억원이상 감소하는 등 영업실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3년만기 회사채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금융부담에서 약 1천억원, 환차(산)손/익에서 약 5천억원 등 영업부문이외에서의 실적(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이 작년동기에 비해 약 7천억원이상의 수익증가요인으로 작용,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부문에서의 수익감소분(5천억원)을 상계하고도 2천억원정도 이익을 발생시켜 다시한번 정유회사의 경영실적은 외환시세 및 금리변동에 따라 일희일비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 '99상반기 정유업계 손/익 내역 〉

(단위 : 억원)

손익내역	'98상	'99상	증감액	증감율(%)
영업이익(A)	12,905	7,890	△5,015	△38.9
영업외수익/비용(B) (+:수익, -:비용)	-10,836	-3,437	+7,399	
• 환차(산)손/익	-1,741	3,342	+5,083	
• 금융비용(이자수익-비용)	-8,256	-7,162	+1,094	
경상이익(C=A+B)	2,069	4,453	+2,384	115.2
세전순이익	1,325	5,219	+3,229	162.3

석유정제업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부채비율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다소 높게 유지되어 왔으나, 작년 하반기이후 정유사들은 자산재평가를 실시, 재평가 적립액이 '97년대비 약 4조 4,000억원이상 증가(자본증가)하여 금년 상반기 현재 정유사 부채비율은 평균 200%이하로 낮아져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낮추도록 한 정부방침에는 충족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자산재평가(실제 현금유입없이 장부상의 수치만 달라지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떨어져도 금융부담은 달라지지 않음)에 따른 부채비율 하락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유업 평균 부채비율은 300%를 상회하게 되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유사별로는 LG정유(주)가 137%로 가장 낮고, 한화에너지(주)가 757%로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보였다.

〈 부채비율 추이 〉

(단위 : %)

연도	SK	LG	한화	쌍용	현대	평균	제조업(평균)
'99. 6	166	137	757	185	261	192	
'98.12	230	275	585	215	250	260	312
'97.12	497	535	3,270	379	992	569	405
'96.12	353	389	1,403	266	804	405	327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의 성과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매출액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일정한 매출을 올려 벌어들이는 이익의 규모로 기업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제시)과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 기업이 주주자본을 사용해 어느정도 수익을 냈는지를 판단)에 대한 정유업계의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정유사별 매출액/자기자본 이익률 추이 〉

(단위 : %)

	SK	LG	한화	쌍용	현대	평균
○99년						
-매출액이익률	11.0	4.4	-3.6	15.4	4.8	8.4
-자기자본이익률	10.4	4.8	-8.0	19.2	6.8	9.4
○98년						
-매출액이익률	1.6	6.0	-3.5	7.0	2.4	3.5
-자기자본이익률	4.1	36.1	-14.6	26.2	8.5	12.4
○97년						
-매출액이익률	0.3	0.3	-1.9	2.1	0.4	0.4
-자기자본이익률	1.4	2.0	-58.1	10.4	3.8	2.5

\* '99년 자료는 '99상반기실적에 2를 곱하여 연간으로 환산한 수치임

정유업계의 올 상반기 평균 매출액이익률은 연간으로 추정시 약 8.4%로 '98년도보다는 약 5%포인트, '97년에 비해서는 무려 8%포인트이상 증가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또 하나의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의 경우 연간으로 환산시 약 9.4%로 작년의 12%에는 못미치지만, 동 수치가 금리와 비슷할 정도로 높게 나타날 경우 이는 외환위주의 경영에서 탈피해 수익성위주의 경영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에서 좋은 현상이 아닐수 없다 하겠다. 정유사별로는 쌍용정유가 매출액이익률 및 자기자본이익률에서 연간환산시 각각 15%, 20%의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SK, 현대, LG순으로 실적이 좋았다.

3. 정유사별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정유사별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SK(주)가 매출액 규모 뿐 아니라 순이익규모면에서도 쌍용정유를 제치고 업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간 순이익 규모 면에서는 줄곧 선두자리를 지켜오던 쌍용정유(주)는 올해 상반기중 정기보수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감소 등으로 매출액이 작년동기대비

36% 감소하여 정유사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순이익규모에서는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그간의 시장확대 전략에서 수익성위주로의 영업전략 전환에 힘입어 작년동기보다 52% 증가하여 SK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 정유사별 경영실적 〉

(단위 : 억원)

	SK	LG	한화	쌍용	현대	계
○99 상반기						
매출액	48,678	30,935	8,894	21,698	14,881	125,086
순이익(세전)	2,668	692	△158	1,661	356	5,219
○98 상반기						
매출액	63,317	45,539	13,420	34,005	19,953	176,234
순이익(세전)	545	445	△889	1,090	134	1,325
○증감(%)						
매출액	△23.1	△32.1	△33.7	△36.2	△25.4	△29.0
순이익(세전)	389.5	55.5	적자축소	52.4	165.7	293.9

한화에너지의 경우 다소 적자폭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97년이후 계속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 자기자본이 잠식('98년말보다 1,500억이상 감소)되는 최악의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화에너지는 9. 1 일부로 현대정유에 피인수되어 비록 2~3년간 별도법인인 인천정유(주)로 운영이 되겠으나, 현대정유로의 인수후 원유도입상의 난점이 해결되어 가동률이 상승하고, 재무구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어서 하반기 이후에는 점진적인 영업정상화가 기대되고 있다.

'99년 하반기 정유산업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의 영향으로 국내석유수요가 다소 회복되고는 있으나, 외환위기 이전의 석유수요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의 주 수출무대인 아시아지역의 전반적인 경기부진 및 원화강세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94~'98년과 같은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순이익 규모면에서도 작년이후 올 상반기와 같은 환율수혜를 기대하기 어렵고, 석유수요 감소로 인한 정유사간의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좋았던 국내정제마진도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와 같은 대폭의 흑자실현은 어려울 전망이다.

'99년 하반기에도 정유업계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수익(저수익)사업의 과감한 처분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질적인 내실경영을 지속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 참고 】

〈 정유사별/연도별 경영실적 추이 〉

(단위 : 억원)

		SK	LG	한화	쌍용	현대	계
매출액	94	58,657	35,300	15,693	24,154	9,910	143,714
	95	65,933	44,562	19,093	34,743	11,484	175,815
	96	83,221	55,671	24,524	44,612	24,906	232,934
	97	107,565	72,024	30,488	53,207	30,980	294,264
	98.상	63,317	45,539	13,420	34,005	19,953	176,234
	98	110,488	79,018	23,412	59,689	35,721	308,328
99.상	48,678	30,935	8,894	21,698	14,881	125,086	
세전이익	94	530	824	△456	1,127	△470	1,555
	95	1,032	1,575	107	1,197	△450	3,463
	96	931	156	61	1,572	221	2,941
	97	293	223	△582	1,137	113	1,184
	98.상	545	445	△889	1,090	134	1,325
	98	1,707	4,735	△807	4,165	874	10,674
99.상	2,668	692	△158	1,661	356	5,219	
부채비율	96	353%	389%	1,867%	266%	804%	405%
	97	497%	535%	3,270%	379%	991%	569%
	98.상	449%	429%	33,208%	276%	447%	466%
	98	230%	275%	585%	215%	250%	260%
	99.상	166%	137%	757%	185%	261%	192%

용어해설



• 지역별 경제고통지수

한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상황에서 느끼는 고통의 상대적인 정도를 측정한 수치다. 이와 비슷한 '국가의 고통지수'는 미국의 경제연구기관인 왓슨경제연구소(WEFA)에서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계산해내고 있다. 지역별 경제고통지수(Local Economic Misery Index)는 47개 구상지표로 이뤄져 있다. 지역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물가상승률, 실업률, 어음부도율이 높을수록, 지역별 산업생산증가율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고통을 겪을 것이라 전제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경제적 고통이 커질수록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진다.

• 위험사회(Risk society)

산업혁명 이래로 인류는 과학 기술을 앞세워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동시에 인간 사회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도 함께 만들어 냈다는 주장.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가 처음 제기했다. 생태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그는 과학에 대한 인간의 오만이 비극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근대 과학이 가져다준 문명의 이기를 인간이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다고 믿지만 인간의 통제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먹거리 하나조차 믿을 수 없는 주변 환경에서부터 체르노빌 원전 참사에 이르기까지 현대인들은 온갖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속도를 붙여가며 진보하고 있는 과학 기술이 미래 사회에는 인류를 향한 칼날로 돌변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위험 사회론은 지난 시절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온갖 부실을 외면하고 외형 부풀리기에만 급급했던 지난날의 관행을 다음 세기에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험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시급하다.